#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에 국힘 "대선 패배 복수"

## 김용민 의원 '주가조작·허위 경력 등 진상규명' 대표 발의
## "대통령 가족 봐주기 수사 반복" 당차원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반격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23일 당론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처럼회 소속 김승원·장경태·황운하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 스스로 권력 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검찰·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며 "김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오늘 특별한 입장은 없었다. 개별 의원들이 현안 대응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다음 의총 전에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공세", "뜬금없다"고 맹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발의에 대해 "대표적인 정치공세"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2년 이상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용민 의원이 '봐주기·늑장 수사'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면 그렇게 한 정권이 어디인가.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돼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었지 않나"라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느닷없이 '민주당피셜' 정치공세를 잡탕으로 뒤섞어 특검법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기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낭설로 인격살인을 하더니 그것으로 부족한가. 그래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사용하여 대선 패배 복수를 배우자에게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교육·복지 장관 인선 신속하게 발표하겠다"

## 윤 대통령 "'정책 누수'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신속하게 장관 인선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실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강했고, 최상목 경제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 등 정책라인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부처 수장 공백에 따른 '정책 누수'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전 부총리 중도 사퇴와 정호영·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새 인물 인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이 넘도록 초대 내각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사 실패는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깔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총리 후보자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주로 교수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주요 후보군에 대한 1차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로,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재차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최종 낙점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한 단계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준석 가처분 결과 이번 주 넘길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번 주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이 다음 주 이후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이 전 대표는 당헌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경찰국장 거취, 다양한 얘기 듣고 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과 관련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청 을지연습장에 격려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장 교체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일단 이야기를 한번 쭉 들은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아직 경찰청장이나 경찰국장과 따로 상의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 국장의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자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인노회 활동 전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 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았다. 이후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문에도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8일째 점거 시위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